

제목	[답론반] 말의 지평: 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개요	<p>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은 글까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언어적 구성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했을 때 따르는 문제는 말을 마치 투명하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표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말은 더럽다. 말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마도 말의 '불순물'들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담론과 맥락, 의식과 존재, 앞과 삶, 언어와 조건, 개념과 사회문화사, 즉 말과 지평의 관계를 고찰하고, 일견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두 항을 교차하는 작업으로써 가능하다.</p> <p>이 세미나에서는 언어의 투명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언어가 어떻게 존재 구성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혹자는 이를 '담론분석'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가장 잘 전달하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방법보다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담론분석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 담론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존재는 어떻게 언어를 구성하는지, 말하기의 조건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p> <p>결론적으로 이 세미나는 이를 통해 말과 마주하는 연구자의 인식적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이름이	채용준		
주차별 내용			
	내용	텍스트	Additional
1주차	푸코의 담론	Foucault (1966/2012) Foucault (1969/2000)	Mills (1997/2001) Foucault (2016/2017)
2주차	포스트식민주의와 식민담론	Said (1978/2017): 1부 Bhabha (1994/2012): 3-4장 Spivak (1988/2013)	Moore-Gilbert (1997/2001)
3주차	부르디외의 언어	Bourdieu (2001/2014)	이상길 (2013)
4주차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Cusset (2003/2012)	이상길 (2011) 채용준 (2017)
5주차	텍스트, 정치, 역사	Skinner (2002/2012)	Tully (1988/1999)
보충 1	개념사	Elias (1981/1996): 1부 Fisch (1992/2010)	Williams (1981/2010) 유선영 (2014) 장석만 (2015) 송승철 (2012)
보충 2	담론분석	Barker (2001/2009) 박해광 (2003)	박해광 (2007)
텍스트 리스트			
<p>박해광 (2003). <계급, 문화, 언어>. 서울: 한울.</p> <p>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사회>, 2권, 83-116.</p> <p>송승철 (2012).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열릿말』과 개념사. <개념과소통>, 10권, 297-329.</p> <p>유선영 (2014). 식민지의 "문화"주의, 변용(變容)과 사후(事後). <대동문화연구>, 86권, 365-407.</p> <p>이상길 (2011). 학술번역과 지식수용, 혹은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 피에르 부르디외의 경우. <언론과사회>, 19권 4호, 232-289.</p> <p>이상길 (2013). 피에르 부르디외의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사회>, 14권, 97-145.</p> <p>장석만 (2015). 식민지 조선에서 "문명-문화-종교"의 개념적 네트워크 형성. <중고문화비평>, 28권, 215-240.</p> <p>채용준 (2017). 지식 수용과 번역의 사회적 조건: 들뢰즈 저작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31집, 425-470.</p> <p>Barker, C.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백선기 (역) (2009).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p> <p>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2012).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p> <p>Bourdieu, P. (2001). Langage et pouvoir symbolique. 김현경 (역) (2014). <언어와 상징권력>. 파주: 나남.</p> <p>Cusset, F. (2003). French Theory. 문강형준·박소영·유충현 (역) (2012). <루이비통이 된 푸코?: 위기의 미국대학, 프랑스 이론을 발명하다>. 서울: 난장.</p> <p>Elias, N. (1981). Über den Prozess der Zivilisation: Soziogenetische und psychogenetische Untersuchungen (Vol.1) 박미애 (역) (1996). <문명화 과정 1>. 서울: 한길사.</p> <p>Fisch, J. (1992). Zivilisation / Kultur. in O. Brunner, W. Conze & R.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Vol. 7 (pp. 679-774). 안삼환 (역)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1: 문명과 문화>. 서울: 푸른역사.</p> <p>Foucault, M. (1966). Les mots et les choses.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p> <p>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 이정우 (역)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p> <p>Foucault, M. (2016). Discours et vérité: Précédé de La parrésia. 심세광·전혜리 (역) (2017). <담론과 진실: 파레스시아>. 파주: 동녘.</p> <p>Mills, S. (1997). Discourse. 김부용 (역) (2001). <담론>. 고양: 위గా사람.</p>			
기타			
<p>김현주 (2013). <사회의 발견: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서울: 소명출판.</p> <p>박지영 (2019).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서울: 소명출판.</p> <p>윤여일 (2016). <동아시아 담론 : 1990~2000년대 한국사상계의 한 단면>. 파주: 들배.</p> <p>酒井直樹 (1997).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藤井たけし (역) (2005). <번역과 주체: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서울: 이산.</p> <p>早川敦子 (2013). 翻訳論とは何か: 翻訳が拓く新たな世紀. 김성환 (역) (2017). <번역이란 무엇인가 : 번역이 만든 새로운 문학과 상상>. 서울: 현암사.</p> <p>Mannheim, K. (1929). Ideologie und utopie. 임석진·송호근 (역) (2012).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파주: 김영사.</p>			